

2) 장승과 입석

(1) 장 승

장승은 길가나 마을 어귀에 세우는 사람 모양의 형상으로, 전남지역에서는 '벽수'라고 부른다. 장승은 마을 수호신, 경성의 표식, 이정표 등의 기능을 지닌다. 재료에 따라 석장승과 목장승으로 크게 분류된다. 장승은 암수 양성으로 마을이나 사찰의 입구에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대개 몸통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명문이 쓰여져 있다. 솟대는 긴 장대 위에 새나 오리를 얹혀놓은 것으로 장대신앙의 표상물이다. 이러한 솟대는 대개 장승과 나란히 서 있다. 낙안민속마을 동문 앞에 세워진 것이 이러한 모습이다.

지금은 장승과 솟대를 보기 힘들다. 본래 장승과 솟대는 1년에 한 번씩 '장승제'를 지내면서 새로 세워졌다. 그러나 장승과 솟대를 지탱해주던 견고한 신앙이 약화되면서 세우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은 모두 썩어 없어졌고, 오늘날은 관광지에서나 간혹 보게 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순천지역의 장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승주읍 선암사 입구 목장승

1987년에 세워진 장승이다. 태고종 본산인 선암사 입구의 부도밭과 승선교 사이에 있는 한 쌍의 목장승이다. 입구에서 오른쪽에 있는 장승의 몸통에 '호법선신(護法善神)', 왼쪽의 장승에 '방생정계(放生淨界)'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절 입구에 세워지는 전형적인 사찰장승의 예다. 전에 있던 장승은 1904년에 세웠던 것인데, 훼손이 심하여 절집에서 보존하고 있다.

② 낙안면 내운리 내동마을 벽수

마을로 들어가는 좌·우측 도로에 2기의 장승이 있는데, 마을사람들은 이 장승을 벽수라 부른다. 좌측 도로 입구에 서 있는 것은 '천하대장군'으로 백호로 생각하고, 우측 도로에 있는 것은 '지하여장군'으로 청룡이라고 여긴다. 정월 보름에 당산제를 모실 때 이 벽수 앞에 황토를 놓으며, 제사가 끝난 후에는 헌식을 한다.

③ 낙안면 동내리 벽수와 짐대

낙안읍성 동문 밖에 2기의 목장승과 1기의 솟대가 있다. 마을사람들은 장승을 벽수라 부르며, 솟대를 짐대라 부른다. 셋이 나란히 서 있는데 맨 오른쪽이 '지하여장군', 가운데가 '천하대장군', 맨 왼쪽이 솟대 순이다. 솟대의 새 머리는 남쪽인 벌교 쪽을 향하고 있다. 정월 보름에 당산제를 지낼 때 벽수와 짐대 앞에서 매구를 친다. 현재의 벽수와 솟대는 낙안읍성마을이 민속마을로 지정되면서 복원된 것이다. 과거에 벽수(짐대) 신앙이 활발할 때는 매년 또는 2, 3년마다 깊은 산중에서 나무를 구해와 벽수와 짐대를 세우고 '장승굿'을 치며 놀았다고 한다.

④ 황전면 덕림리 미초마을 벽수

미초마을의 서북향에 좌우 1기씩의 장승이 있다. 좌측의 것은 '암벽수', 우측의 것은 '수벽수'라 불린다. 암벽수의 크기는 높이 1.5m 이고 수벽수는 1.4m 이다. 이 벽수는 수구막이를 위해 세워졌으며, 마을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음력 정월 14일 밤에 당산제를 지낼 때, 벽수와 적석에도 메를 차리고 축문을 읽고 소지를 태우며 헌식을 한다.

(2) 입 석

입석은 고인돌과 더불어 거석문화의 잔존 양태로 여겨지는데, 마을 앞에 세워져 잡귀의 침입을 막는 수호신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남근 상징으로 생산신의 기능을 지니며, 아울러 풍수지리적 기능을 지니는 신앙물이다.

순천지역의 입석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탑’이라 불리는 적석입석이다. 이 지역에는 돌을 원추형으로 쌓아 올린 탑이 매우 많이 있다. 이러한 탑과 입석은 현상적으로 다른 것이다. 입석은 말 그대로 세워진 돌로 선돌(입석)을 말하며, 탑은 돌을 쌓아 만들었으니 선돌과는 구별된다. 그것을 굳이 구분하여 이름을 붙인다면 단석입석, 적석입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석이든 적석이든 세워진 위치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입석류로 함께 다룰 수 있다. 탑(적석입석)은 순천·구례·곡성 등 전남 동부지역에 특히 많이 분포해 있다. 이것이 산간 농경지역 마을신앙의 한 특징임을 말해준다. 이 지역의 입석 중 대표적인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낙안면 동내리 입석

낙안읍성 동문 밖 다리 앞에 2기의 입석이 있다. 이것은 개의 형상으로 거칠게 다듬은 것인데 ‘개바구’ 또는 ‘독개’라고 부르며, 오른쪽 것을 ‘수캐’, 왼쪽에 있는 것을 ‘암캐’라고 부른다. 수놈의 크기는 높이 80cm 인데 이 중 기반의 높이가 20cm 이고 몸체가 60cm 이다. 머리 둘레는 90cm , 몸체 둘레는 160cm 이며, 목은 37cm 이다. 기반의 옆면은 80cm 로서 하나의 돌로 되어 있다. 암컷의 크기는 높이 55cm , 둘레 140cm 이나, 깨져서 그 형체가 망가져 있다. 정월 보름에 당산제를 지낼 때 개바구에 제물을 차리고 매구를 친다. 이 입석은 수호신으로 마을을 잘 지켜준다.

② 승주읍 두월리 적석입석

마을 입구의 도로 좌측에 적석입석 1기가 있다. 굽은 돌을 영성하게 쌓아두고 그 위에 돌을 세웠다. 주민들은 이것을 탑이라고 부른다. 적석의 높이는 90cm 이고, 그 위에 세운 돌의 높이는 80cm , 너비 상단부 25cm , 하단부 50cm , 둘레 140cm 이다.

입석은 ‘액막이’ 또는 ‘수구막이’이며, 마을의 ‘사립문(대문)’이라고 한다. 입석을 세우면 마을이 부유해진다고 해서 세운 것이다. 음력으로 정월 초사흘날 당산제를 지내며, 마을 가운데에 할아버지 당산나무(씨나무)가 있다. 50여 년 전에는 마을 앞 도로의 좌우에 짐대를 세웠는데, 이는 전봇대 높이의 나무 위에 오리를 깎아 얹히고 입에 대나무를 물려놓은 형상이었다고 한다.

③ 승주읍 유천리 입석

마을 앞에 입석 1기가 있다. 입석에 대한 명칭은 없고, 당산제도 지내지 않는다. 입석의 크기는 높이 90cm , 둘레 90cm 의 자연석이며 가슴과 아랫도리에 흑처럼 불쑥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 인체를 연상시킨다.

④ 승주읍 남정리 입석

남향인 마을 앞으로 도로가 나 있고 도로 건너 길가에 입석 2기가 나란히 서 있다. 마을에 서는 이 입석을 탑이라고 부른다. 상대적으로 키가 큰 것과 작은 것이 구별되는데 키가 큰 입석의 크기는 높이 90cm , 둘레 100cm , 너비 25cm , 두께 20cm 이고 작은 것은 높이 65cm , 둘레 100cm , 너비 35cm , 두께 20cm 이다. 이 입석은 마을의 액막이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

⑤ 서면 선평리 입석

마을 입구 좌·우측에 1기씩 두 개의 입석이 있다. 도로 우측에 있는 입석의 크기는 높이 165cm , 너비 105cm , 두께 30cm 이며 좌측에 있는 것은 높이 150cm , 너비 95cm 이다.

⑥ 주암면 행정리 사포마을 미륵

남향인 마을 앞으로 국도가 있고, 도로 건너에 있는 당산나무 좌우에 입석 1기씩이 있다. 이는 본래 미륵상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벼락을 맞아 상반신이 사선으로 갈라져 따로 하나씩 세워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이 '목백이'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것은 영감이라고 하며, 주암면 창촌리에 '미륵할머니'가 있다고 한다.

하반신의 크기는 높이 200cm , 너비 80cm , 둘레 210cm , 잘린 사선의 길이 110cm 이고 상반신의 크기는 높이 160cm , 얼굴 길이 80cm , 몸통 길이 80cm , 얼굴 너비 50cm , 어깨 너비 80cm 이다. 미륵의 상반신을 눕혀놓으면 비가 오지 않고, 세우면 비가 오는데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이를 세운다. 또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상반신을 눕혀놓는다. 전에는 당산제를 지내지 않았는데 현재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지내고 있다. 이 마을의 자연마을 이름은 '살부쟁이'인데, 이는 마을 앞 들판이 아버지를 죽인 살부형국이기에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⑦ 주암면 창촌리 미륵할머니

마을 뒤 콩밭에 미륵 1기가 있고, 바로 앞에 새끼미륵이 있다. 행정리의 미륵과 부부로 '미륵할멈'이라 부른다. 미륵할멈의 크기는 높이 150cm , 얼굴 길이 50cm , 몸통 길이 100cm , 얼굴 너비 35cm , 어깨 너비 65cm , 얼굴 둘레 110cm , 몸통 둘레 175cm 이고, 새끼미륵은 높이 60cm , 얼굴 길이 25cm , 얼굴 둘레 70cm , 몸통 둘레 80cm 이다.

⑧ 황전면 회룡리 신기마을 적석입석

마을 옆으로 도로가 나 있고, 도로 좌측에 적석입석이 1기 서 있다. 본래는 작았던 것을 몇 년 전에 크게 만들었다. 반구형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탑이라고 부른다. 꼭대기에 높이 40cm , 너비 15cm 의 돌을 세워두었고 적석의 높이는 260cm , 둘레 800cm 로 동네로 들어오는 액을 막아준다고 한다.

⑨ 황전면 덕림리 미초마을 적석입석

마을 바로 앞에 적석입석이 있다. 적석이 3층으로 되어 있고 꼭대기에 돌을 세웠다. 적석단을 1층에서부터 살펴보면 높이 70cm , 2층 높이 220cm , 둘레 1,100cm 이고, 3층 높이 60cm , 꼭대기 돌의 높이는 50cm 로서 전체의 높이는 4m 에 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탑이라 부르고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마을 앞산이 마을에 연결되어 있었으나 홍수로 산이 떠밀려갔기 때문에 산과 마을을 잇는 의미에서 탑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입석이 마을의 액을 막아준다고 믿으며 당산제를 지낼 때 신체로 여기고 봉사하고 있다.

⑩ 황전면 죽내리 내동 적석입석

마을 입구 도로 좌측에 적석입석 1기가 있다. 반구형으로 돌을 쌓아올렸으며, 주민들은 탑이라고 부른다. 현재는 상단에 콘크리트로 4H 표시판을 해놓고 있다. 입석의 크기는 높이 200cm , 둘레 640cm 이다. 이 입석은 액막이를 해주며, 마을의 운세를 좋게 하고 수구를 건너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서 모아준다고 한다. 당산제는 한국전쟁 전까지 모셨다고 한다.

⑪ 황전면 회룡리 각문마을 입석

마을의 도로 옆에 입석 1기가 있다. 입석은 독특한 형태로 바윗돌 위에 북처럼 생긴 원통형의 바위가 얹혀 있다. 마을에서는 이를 '북바우'라고 한다. 입석의 크기를 두 개로 나누어보면 상단에 있는 북형의 돌은 높이 50cm , 너비 90cm 이며 밑의 바윗돌 크기는 높이 270cm , 둘레 740cm , 너비 200cm 이다. 북바우에는 두 개의 전설이 있는데 하나는 앞산이 선비인데 옛날에 그 선비가 앉아 북을 쳤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용이 용소에서 목욕을 하고 나서 북바우에서 북을 친 후 승천하였다고 한다. 약 20년 전에 북바우가 땅에 떨어진 후 마을이 좋지 않아 다시 올려 앉혔다고 한다.

참고로 주암댐 수몰지역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1985년에 실시된 주암댐 수몰지구 지표조사에서 입석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파악된 자료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소재지	유적명	비 고
주암면 광천리 외광마을	철용(1)	고인돌
송광면 이읍리2구	장승(2)	
송광면 오봉리 오치리마을	입석(1)	
송광면 옥룡마을	입석(1)	
송광면 후곡리	입석(1)	적 석
송광면 덕산리 죽산마을	오제석(烏啼石, 1)	
송광면 우산리 내우마을	입석(1)	적 석
송광면 월산리 추동마을	미륵(1), 입석(1)	